

기조발제

탈근대 / 모더니즘 / 디자인

권 명 광 (홍익대학교 수석 부총장)

모더니즘과 디자인

모더니즘은 19세기 말엽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문학과 예술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 사조로써 제1차대전을 전후하여 전성기를 맞이한 다음 제2차대전이 끝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체된다.

모더니즘의 태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추적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19세기에 일어난 2가지 사회변화에서 그 근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후세계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 믿음이라는 종교적 확신이 사라지고 삶의 저편에 있는 불변의 공허와 죽음 뒤의 무를 의식하기 시작함으로써 발생한다.

1863년 프랑스 역사학자 에르네스트 르낭의 '예수의 생애'에서는 지금까지 금기시되었던 예수를 인간적이고 역사적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어떠한 종교도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회람인 조루바의 작가 니코스카진스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역시 이와 유사한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소설이다. 즉 종교관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감각과 지각에 대한 변화

두 번째는 운송과 통신수단의 발달과 운동속도·빛·소리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공간적·시각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감각과 지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말에 의한 교통수단은 기차나 자동차로 대체되고 비행기나 기구의 등장으로 고공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을 접하게 되면서 원근법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감각지각 차원의 변화는 인간과 제품,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기계주의에 의한 인간성의 회복을 부르짖게 된다.

20세기를 향한 비전인 모션

1910년 독일의 심리학과 중 베를린학파의 베르타이머, 켈러, 코프카에 의해 마음

의 과학이라는 Gestalt 학파가 설립되면서 지각이나 감각에 대한 근원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1896년 기능주의 작가 루이스 설리반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기능주의 이론을 계승한 그의 제자 피터 베렌스의 등장은 아르누보를 종식시키고 모더니즘의 원년으로서 1910년을 장식한다. 그 후 퍼스펙티브와 웨딩 스피드의 문제는 고갱, 피카소, 칸딘스키 등으로 발전되면서 디자인에서는 1920년대 마리카산드르의 포스터를 크게 유행시킨다.

1910년을 전후하여 소쉬르의 이론적 연구로부터 의미와 생성을 지배하는 규칙과 관습, 즉 언어의 구조를 밝혀 내고자하는 구조주의가 등장하면서 언어, 그림, 코드, 신호, 표시등 사회생활 가운데서 기호의 생을 연구하는 과학이란 기호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구라파를 대표하는 소쉬르(1857~1913)나 미국을 대표하는 피어스 등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비언어적 기호체계로 까지 확대되면서 이미지의 영역을 시각적인 범주 내에서 해석하기 시작한다. 즉 시각언어에서도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방법론적 연구가 가능함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게 된다.

예술이론 역시 예술의 본질을 철학이나 미학의 틀에서 논의 되던 것에서 벗어나 예술을 일상적인 세계와 연결하여 보려는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예술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현존한다”는 쿠르베의 말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조형예술에서의 모더니즘

조형예술에서의 모더니즘은 1919년 예술지상주의에 의해 격화된 공예의 위치를 회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바우하우스의 선언문에서부터 새로운 해석이 시작된다.

“미술은 비생산적이며, 불안정한 예술적 기교에서 탈피하자.”

“미술이 처해있는 고립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모든 조형가들의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살롱미술로 전락하여 상실한 미술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등 일부 선언문에서는 그 시대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비판을 엿볼 수 있다.

공예와 미술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바우하우스를 비순응적 돌연변이라고도 말하지만 바우하우스는 시대의 전환기에 모더니즘을 집대성한 현대 디자인 교육의 산실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디자인에서의 모더니즘은 1910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광고사 설립과

1920년 동아·조선일보 창간, 1931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설립한 이순석 교수의 동경미술대학 도안과 졸업, 홍익대학교 도안과 초대주임교수였던 한홍택 교수(1937)의 동경도안 전문학교 졸업, 그리고 1946년 조선 산업미술가협회 창립 등에서부터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교육기관으로서는 1958년 신설된 홍익대학 공예과의 교육이념, 운영방법, 교과과정 등에서 모더니즘 교육을 승계한 바우하우스 교육체계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한홍택 모던아트전, 권순형 디자인전 등을 통해 모더니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그 당시 유행하던 앵포르멜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모더니즘의 비판과 수용

모더니즘은 예술이 세속화되면서 저속한 상업주의와 야합한 속물적인 중산층으로부터 예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전략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으나, 비밀암호문서 같은 난해성과 무질서, 혼돈스러운 심미적 이미지등에 의해 1930년경부터 저항받기 시작한다.

전기 실험정신은 일반 대중과는 거리가 먼 고도의 예술적 심미안을 가진 특정엘리트 계층을 위한 예술로서 고답적이라는 비판은 물론 비역사적이고 비정치적으로 사회성과 역사성이 결여된 채 형식과 기교에만 지나치게 탐닉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외에도 권위주의적이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하여 나치즘이나 파시즘 극우파적 정치 이데올로기와 밀접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 모더니즘으로부터 단절과 지속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면서 애매 모호성, 불연속성, 이단, 다원론, 임의성, 반역, 곡해, 변형 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포스터 모더니즘으로 서서히 대체되기 시작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더니즘은 19세기에서 20세기의 전환기에 나타난 문화사조로서 비록 문학에서 출발은 하였지만, 미술·건축·디자인 등으로 다양하게 확산되어 크게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부정형의 미술이라는 앵포르멜, 옵아트, 팝아트 등의 새로운 미술형식이 다양하게 밀려오면서 모더니즘은 점차 퇴조하기 시작한다. 미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서의 모더니즘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수용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다.

모더니즘은 외래문화의 충격에 대한 전혀 대응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과와 수정 없이 종속적 위치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이를 통해 외래문화에 대응력이 성숙되었다.